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16. 1. 27. ~ 2016. 4. 26.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맡아 운용하고 있는 펀드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펀드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이익은 얼마나 났는지 같이 살펴 볼까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펀드는 10.65%의 이익을 냈어요. 주식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3.51%p를 웃도는 성적이랍니다.

이 기간 동안 유럽과 중국에서 금융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있었어요. 유가와 철강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면서 관련 업종의 주식도 덩달아 상승하였구요. 특히 우리 펀드가 높은 비중으로 갖고 있었던 철강금속, 화학, 금융 업종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서 성적이 좋아지게 됐어요.

향후 한국 경제에는 국내 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유가 관련 업종과 건설, 조선 업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지금 당장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보다는, 앞으로 2~3년 사이에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우리 펀드에게 좋은 성과를 내 줄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할 계획 이랍니다.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16. 4.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10.65%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16. 1.27. ~ 2016. 4.26) +10.65%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7.14%인 것에 비하면 3.51%p만큼 높답니다.

최근 5년 수익률

+30.67%

비교지수 : -5.87%

비교지수대비 : +36.54%p

최근 3년 수익률

+19.18%

비교지수 : +4.35%

비교지수대비 : +14.83%p

최근 1년 수익률

+1.62%

비교지수 : -5.62%

비교지수대비 : +7.24%p

22,515 백만원

자산 총액

+9.95%pt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자산 총액이에요.

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9.95%p가 늘었어요.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신영주니어경제박사



www.syfund.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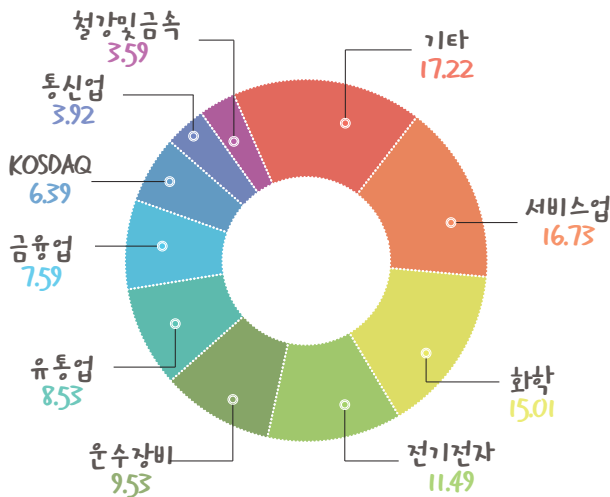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종목>

(기준일: 2016. 12.6., 단위: %)

1위	삼성전자	8.76
2위	KT	3.75
3위	하나금융지주	3.52
4위	GS	2.80
5위	대교	2.67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업종별 투자비중을 보면, '대교', 'KT' 같은 서비스 업종과 함께 '삼성전자' 같은 전기, 전자 업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화학, 운수장비, 유통업 업종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외에도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회사들에도 투자하고 있답니다.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볼까요?>



현대건설

토목, 건축, 플랜트, 인프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회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침체를 맞고있으나, 탄탄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세계시장으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

로봇, 인공지능과 관련한 차세대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로봇 제작도 성공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로봇형 탄약운반차와 같은 방위 산업 시장에서까지 첨단 기계산업을 선도하고 있어요.



GS

유통, 무역, 가스전력사업, 작년년부터 시작한 관광호텔업 등 6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중에서도 GS에너지는 자원개발, 해양도시가스 사업 등 9개의 자회사를 인수한 에너지전문사업자주예요.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주니어경제박사의 IT 열전 - 드론이야기



DJI사의 Phantom 드론 (Drone)

주니어 경제박사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에서 자주 들리고 있는 '드론(Drone)'을 아시나요? 최근 정부에서 산업규제 개혁안 중 하나로, 드론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뉴스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어요. 조종사 없이 비행, 조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인 드론에 대해 함께 알아보까요?

드론(Drone)은 사전적 의미로 벌 등이 뱅뱅거리는 소리를 뜻합니다. 더불어,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한다는 점에서 무인항공기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처음에는 군대에서 연습사격때 표적역할로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군대 내에서는 정찰, 감시, 핵무기활동 감시 등의 용도로 쓰이죠.

세계 2차대전 때의 낡은 무인기를 재활용하는 데에서 개발이 시작되어, 이후 원격탐지장치와 위성제어 장치 등 첨단장치를 장착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 위험지역 등에 투입 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적을 공격하는 공격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성격 외에도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직접 가서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를 촬영하거나, 인터넷 쇼핑물의 무인택배 서비스로의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중개업자인 '아마존'은 주문한지 30분만에 배달이 가능한 드론 시제품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미국 내 50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번에 최장 24km를 비행할 수 있어 웬만한 거리는 30분안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월마트와 구글도 이 '드론택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쩌면 하늘에서의 택배전쟁이 시작될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 첨단 기기인 드론이 좋기만 한 것 일까요? 일각에서는 드론으로 비롯된 각종 안전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강해요.



DHL사의 드론 택배서비스 (Parcelcopters)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드론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요.

이렇게 드론을 실생활에 도입시킴으로써, 3만명이 넘는 일자리가 생기고, 12조 7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주니어경제박사 친구들도 드론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인지,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0.65%로 비교지수 수익률 +7.14% 대비 3.51%pt 상회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운용경과>

지난 분기 코스피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중순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며 1,835pt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유럽과 중국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기대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2,000pt선까지 반등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소외되었던 철강금속 업종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전기 가스 업종이 실적 안정성이 부각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펀드는 해당기간 비교지수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는 펀드가 보유한 음식료, 서비스 업종이 조정을 보였으나, 펀드가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였던 철강금속, 금융, 화학 업종과 꾸준히 비중을 늘려왔던 가치주가 양호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해당기간 펀드는 주가 소외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대형 우량주와 향후 2~3년 사이에 기업가치 상승이 진행될 업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장가치가 있는 중소형주의 편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

연초 이후 경기민감 대형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한 한국 증시는 미국의 소비 지표와 한국 수출입 지표 둔화, 총선 이후 국내 산업 구조조정 이슈의 부각, 기관의 차익실현 환매의 지속 등으로 경계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수는 조정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기의 견조한 회복세와 중국의 경기 회복을 지지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역시 전년과 같은 급락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기업 이익 추정치의 변화 흐름을 보면, 2월 중순부터 기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되고 있고, 경기 민감업종의 턴어라운드 진행되고 있으며 유가관련 업종의 실적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올해 1분기부터 수주 산업의 공시 기준이 강화되어 건설, 조선 등 업종 종목의 장부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가 증가하며 투자심리 회복이 점증하는 구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펀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저성장 국면에서 체질개선이 진행중인 국내 대표 업종의 1등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1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시점으로 각 기업의 이익 개선 여부에 집중하고, 기업가치의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압축하여 펀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